

# 군산시,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 제고

### TPO 포럼 참가 전문가들의 의견·발전 방향 모색 “해의 관광트렌드 분석·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

군산시는 관광산업 지식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제8회 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제8회 TPO 포럼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전주시, 통영시, 부산시, 중국 광저우, 일본 후쿠오카, 베트남 호치민 등 10개국 86개 도시 및 45개 정부 기관 민간단체 초청인사 300여명이 참가한다.

스마트관광을 주제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가하는 군산시는 회원도시의 관광시장 최신동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대를 청취하고 현지 주요 여행사 항공사 관광 유관기관 등을 초청한 공동마케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호치민시 관광청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문화 관광분야의 국제 교류와 다양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 도시간의 의견을 나눌 간단한 회를 22일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제주 항공노선과 군산~석도 여객선 운항 노선 증편으로 해외관광객들의 방문 기회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해외마케

팅 활동을 통해 해외 관광트렌드 분석과 해외 관광객 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국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작은 관광도시가 아닌 해외 관광객 수용도 가능한 세계적인 관광지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2011년부터 TPO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포럼 및 해외 공동마케팅에 참가해 주요 관광자원 홍보 및 회원도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외관광마케팅 자원을 확대함으로써 군산시에 맞는 관광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7월초 ~ 중 인사단행 예고

## 4급 서기관 후보 6~7명 경쟁 치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빠르면 오는 7월 초에, 늦어도 중순에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정현을 시장이 당선 이후 첫 인사라는 점과 향후 4년간 시장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최대 관심사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4급 서기관(국장)은 승진 두 자리를 놓고 6~7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서기관 승진 물망에 오른 후보는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투자유치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등 6명 정도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청 안팎에선 기술직 서기관 하수도사업단장이 기술직 서기관인 만큼 직렬 안배 차원에서 행정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급 사무관(과장)은 8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는 내부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이종보 기술보급과장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서기관(국장) 2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핵심 부서장(국·과장)정보인사도 소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인사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고 아울러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 운영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공직자들을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남북경협에 맞춰 유라시아철도 거점도시 건설 추진”

### 민선 7기 중점사업 발표 익산을 출발역으로 하는 북-중-러-유럽까지 연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2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시대에 맞춰 민선 7기 중점사업으로 익산을 출발역으로 하는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철도 거점도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실제로 정 시장은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고 모든 게 안정화되고 나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또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진절하고 끝없는 익산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2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던 점을 감안해 내달 초 시민들을 초청,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의 힘찬 첫 출발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2년 전 첫 당선된 후에는 밀려 있는 익산시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취임식도 간소하게 하고 시정을 맡아왔다”면서 “이제는 모든 게 안정화된 만큼 시민들을 모시고 성대하고 힘차게 시작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의 취임식은 익산시의회가 개원하는 7월 2일 이튿날인 3일이 될 전망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위한 임시회 내달 2일 개회

‘제8대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09회 임시회’가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와함께 2일 오후 4시에는 새로 선출된 의장단이 주관하는 제8대 시의회 개원식이 열린다.

둘째날인 3일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

황선출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체 의원 25명중 민주당 17명, 무소속 4명, 평화당 및 정의당 각 2명씩이 분포돼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이번이 없는 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익산시의회 사무국 주선으로 21일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당선자들은 상견례와 함께 시의회 개원 등 현안을 청취했다.

초선 당선자들은 22일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서우선) 주관으로 충남 유성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열리는 의원당선자 1일 세미나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다.

이날 1일 세미나 및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원당선자가 의정생활중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의회사무국과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공무원노조, 지역경제 살리기 모든 역량 집중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이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군공노에 따르면 전국 13개 광역시·도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군산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에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80여명은 2박 3일간 군산에 머무르며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을 비롯해 근대역사박물관과 고군산 등을 방문하는 등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윤 위원장은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군산 경제를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순항

익산시가 최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개월 간 현장준비를 거쳐 마침내 6차분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되었지만 시공사와 설계변경 등의 이견사항으로 장기간 공사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탈동안 준비를 마치고 최근 착공에 들어가 익산시와 갈리다 시공사가 수시로 현장에서 공청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를 반영하기위해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소요사업비가 약 2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이미 지난해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걸쳐 민원해결의 필요성을 피력, 추가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이룬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익산시는 202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복지재정 교육 부정수급 예방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관내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회계담당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회복지 현황, 부정수급 예방 교육의 필요성,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및 사례, 부정수급 근절 노

력 순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방안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신뢰받는 군산시 복지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 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